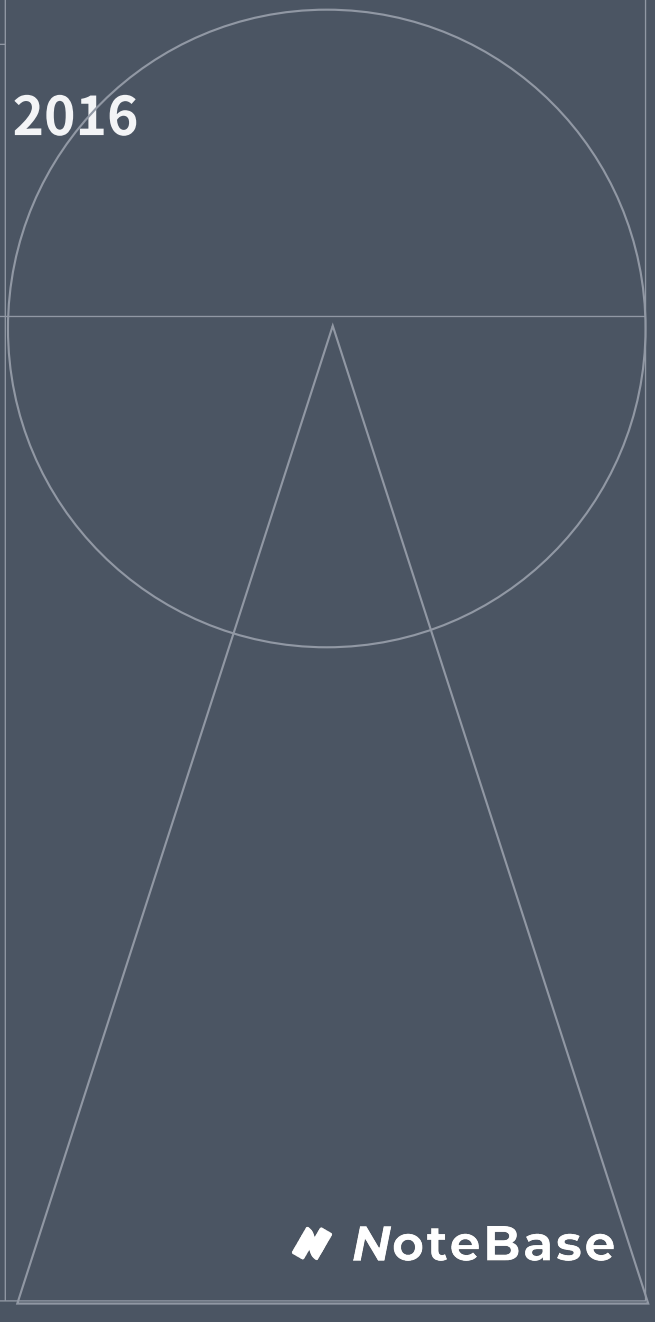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6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6

문 1.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① 대화는 열기를 띄기 시작했다.

②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③ 아침에 찌은 쌀이라서 밥맛이 정말 고소하군요.

④ 아침부터 오던 비가 개이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헷갈리기 쉬운 동사의 올바른 형태와 활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띠다는 기운·빛·색채·성질을 지닌다는 뜻이고, 띄다는 뜨게 하거나 간격을 벌린다는 뜻이다.
깃들이다는 새가 보금자리를 잡거나 어떤 곳에 자리 잡는다는 뜻이므로 관형형은 깃들일이 된다.
찌다의 관형형은 찐이고, 개다는 연결형으로 쓰일 때 개고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띄기'가 틀린 표현이다. 열기나 분위기를 지닌다는 뜻이므로 '띠다'를 써서 '대화는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가 맞다.

② O
'깃들일'은 '깃들이다'의 활용형으로 맞는 표기이다. 새가 깃들 곳이라는 뜻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③ X
'찌은'이 틀린 표현이다. '찌다'의 관형형은 '찐'이므로 '아침에 찐 쌀'이 맞다.

④ X
'개이고'가 틀린 표현이다. '개다'가 연결 어미 '-고'와 결합하면 '개고'가 되므로 '비가 개고'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띠다/띄다'처럼 발음이 비슷한 말과 '찌다→찐', '개다→개고'처럼 활용형이 줄어드는 말을 헷갈리기 쉽다. ③과 ④는 원형만 떠올리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활용형을 확인하면 틀린 선택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어가 맞춤법 문제로 나오면 먼저 원형 뜻을 구분한 뒤 실제 문맥에 맞는 동사를 고른다. 그다음 활용형이 줄어드는지까지 확인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기운은 띠고, 새는 깃들이고, 찌면 찐이 되고, 비는 개고 그친다.

NoteBase

문 2.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솜이불[솜:니불]

② 직행열차[지캥열차]

③ 내복약[내:봉냑]

④ 막일[망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 ㄴ 첨가가 일어나는지, 이어서 비음화까지 반영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말 끝이 자음이고 뒤말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이면 표준 발음법에 따라 [ㄴ]이 첨가된다.
받침 ㄱ, ㅂ 같은 자음은 뒤에 첨가된 ㄴ이 오면 비음화되어 각각 [ㅇ], [ㅁ]으로 바뀔 수 있다.
'열차'처럼 여로 시작하는 말도 ㄴ 첨가 대상이므로 [녈차]로 발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솜이불'은 합성어이고 뒤말 '이불'이 이로 시작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 [솜:니불]로 발음한다.
② X: '직행열차'는 '직행+열차'의 합성어이므로 '열' 앞에 ㄴ 첨가가 일어나 [지캥녈차]가 된다. 제시된 [지캥열차]는 이 ㄴ 첨가를 반영하지 못했다. 틀린 표현은 [지캥열차]이고, 올바르게는 [지캥녈차]이다.
③ O: '내복약'은 '내복+약'의 합성어이므로 '약' 앞에 ㄴ 첨가가 일어나고, 받침 ㅂ은 뒤의 ㄴ 앞에서 비음화되어 [내:봉냑]이 된다.
④ O: '막일'은 '막+일'의 합성어이므로 '일' 앞에 ㄴ 첨가가 일어나고, 받침 ㄱ은 뒤의 ㄴ 앞에서 비음화되어 [망닐]이 된다.

오답 포인트

'여'로 시작하는 말에서는 ㄴ 첨가를 빠뜨리기 쉽다. '직행열차'에서 앞부분 [지캥]만 확인하고 뒤의 '열차'를 그대로 [열차]로 읽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성어인지 먼저 확인한 뒤, 뒤말 첫소리가 이, 야, 여, 요, 유이면 ㄴ 첨가를 적용한다. 그다음 앞받침이 ㄱ, ㄷ, ㅂ 계열이면 ㄴ 앞에서 비음화가 이어지는지 함께 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음 받침 뒤에 이, 야, 여, 요, 유가 오면 먼저 ㄴ 첨가, 그다음 필요하면 비음화이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공과(功過)를 기록하는 전기(傳記) 형식의 글을 ( )이라고 한다. 거북 · 대나무 · 지팡이 · 술 · 돈 따위의 동물이나 식물, 생활에 필요한 물건 같은 사물을 의인화해 그 생애를 서술한다.

① 평전(評傳)

② 열전(列傳)

③ 가전(假傳)

④ 실전(實傳)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한문 산문인 가전의 개념을 다른 전기 관련 용어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전(假傳)은 거북, 대나무, 술, 돈처럼 사람이 아닌 사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일대기 형식으로 꾸며 쓴 글이다. 키워드는 사물 의인화와 전기 형식이다.
평전(評傳)은 실제 인물의 생애를 서술하면서 평가를 덧붙인 전기이다. 키워드는 실존 인물과 비평이다.
열전(列傳)은 여러 인물의 행적을 차례로 기록한 전기이다. 키워드는 다수 인물과 열거이다.
이 문항의 핵심 구별점은 실제 인물을 기록하느냐, 사물을 의인화하여 꾸며 쓰느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평전은 실제 인물의 생애를 서술하면서 비평을 곁들이는 글이다. 틀린 부분은 사물을 의인화한 전기 형식을 평전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사물을 의인화해 전기처럼 꾸며 쓴 글은 가전이다.
② X. 열전은 역사서 등에서 여러 인물의 행적을 나열하여 적는 전기 형식이다. 틀린 부분은 열전을 동물·식물·사물의 의인화 전기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여러 인물의 전기를 차례로 기록한 것은 열전이고, 사물을 의인화한 것은 가전이다.
③ O. 가전은 동물, 식물, 사물 등을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성품과 공과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갈래이므로 제시문의 설명과 정확히 맞는다.
④ X. 실전은 제시문의 갈래 명칭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전기 형식의 명칭을 실전으로 잡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사물을 사람처럼 꾸며 전기체로 서술한 글은 가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전(傳)자가 들어간 용어들이 모두 전기와 관련되어 보여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전기라는 공통점이 아니라 사물을 의인화했는지가 핵심이므로, 평전과 열전처럼 실제 인물을 다루는 갈래를 먼저 지우면 정답이 빨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동물·식물·사물·의인화·가계·생애 같은 말이 보이면 가전을 우선 떠올리면 된다. 실제 인물을 평가하면 평전, 여러 인물을 나열하면 열전, 사물을 사람처럼 꾸며 전기체로 쓰면 가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전은 가짜 인물이 아니라 사물을 빌려 쓴 전기이며, 키워드는 사물 의인화이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문장은?

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 그 밖의 것은 모두 췌언(贅言)에 불과하다.

② 한학의 온축(蘊蓄)을 문학작품의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③ 습작 활동을 오래도록 한 일은 그의 치밀한 성격을 야기(惹起)하였다.

④ 귀국한 동생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단취(團聚)가 실현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자어 어휘의 뜻과 문맥상 결합 관계가 자연스러운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贅言은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을 뜻한다.
온축은 학문, 지식, 교양 따위를 오래 쌓아 둠 또는 그 축적을 뜻한다.
야기는 어떤 일이나 문제를 불러일으킴을 뜻하며, 문맥상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분명해야 자연스럽다.
단취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임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이라는 앞말에 이어, 그 밖의 말은 군더더기에 불과하다는 뜻이므로 贅言의 쓰임이 자연스럽다.
② O: 온축은 오래 쌓인 학문과 교양을 뜻하므로, 한학의 온축을 문학 창작으로 승화시켰다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③ X: 야기는 어떤 사건이나 상태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오랜 습작 활동'이 '치밀한 성격'을 만들어 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어색하다. 틀린 표현은 '치밀한 성격을 야기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습작 활동을 오래도록 한 일은 그의 치밀한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또는 '그의 치밀한 성격이 오랜 습작 활동을 낳았다'이다.
④ O: 단취는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일을 뜻하므로, 귀국한 동생으로 인해 가족의 단취가 실현되었다는 표현이 문맥에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야기를 단순히 '어떤 원인을 만들다' 정도로 넓게 이해하면 속기 쉽다. 이 문장에서는 성격이 습작 활동의 바탕이 되는 쪽이 자연스러운데, 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어휘 문제에서는 낱말의 사전적 뜻만 보지 않고, 그 말이 문장 안에서 어떤 대상과 결합하는지,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자연스러운지를 함께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야기는 어떤 일이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고, 성격 자체를 거꾸로 만들어 내는 표현에는 잘 붙지 않는다.

NoteBase

문 5. 어법에 맞는 것은?

①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시켜 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③ 1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2반 축구팀에 패배하였다.

④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동 표현의 남용, 대등한 문장 성분의 호응, 단어 뜻에 맞는 서술어 선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동 표현: 이미 '-하다'만으로 뜻이 완성되는 말에는 불필요하게 '-시키다'를 덧붙이지 않는다.
문장 성분의 대등성: '와/과'로 이어진 말은 문장 안에서 같은 자격으로 연결되어야 자연스럽다.
단어 의미 적합성: 서술어는 주어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동작과 뜻이 맞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날씨가 누그러지다', '예년 기온을 되찾다', '예상됩니다'의 연결이 모두 자연스럽다. '주말에는'이 미래 상황을 가리키므로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도 어법에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소개시켜 준'이다. '소개하다' 자체에 이미 남에게 관계를 맺어 주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시키다'를 붙인 것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친구가 소개해 준 학교'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이다. '와'로 묶인 두 성분은 대등해야 하는데 앞은 관형어가 붙은 명사구이고 뒤는 서술 구조라 균형이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또는 '수비가 불안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다. '휴대하다'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뜻이므로 주어가 트럭일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방송 장비를 실은 트럭'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시키다' 남용은 비교적 눈에 잘 띄지만, ③은 '와'로 연결된 성분의 대등성을 놓치기 쉽고 ④는 '휴대하다'의 정확한 뜻을 넓게 이해하면 속기 쉽다. 겉으로 자연스러워 보여도 연결 방식과 단어 뜻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있는지 본다. 다음으로 '와/과'로 이어진 성분이 같은 자격으로 병렬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가 실제로 호응하는지 점검하면 어법 오류를 빠르게 가릴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개는 '소개해 주다'가 자연스럽고, '와/과' 앞뒤는 대등해야 하며, 트럭은 장비를 '휴대'하지 않고 '싣는다'.

NoteBase

문 6. ㉠ ~ ㉣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春去花猶在 ㉠天晴谷自陰
杜鵑啼白晝 始覺㉡卜居深
— 李仁老, 「山居」 —

(나)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靑靑㉢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 王維, 「送元二使安西」 —

① ㉠: 날이 개다.
② ㉡: 사는 곳이 깊다.
③ ㉢: 버드나무 빛깔이 새롭다.
④ ㉣: 돌아가신 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시 구절에 쓰인 한자어의 문맥상 의미를 정확히 풀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시의 어휘는 글자 하나의 사전적 뜻만 보면 오답에 빠질 수 있고, 구절 전체의 문맥 속에서 뜻을 잡아야 한다. 특히 고전 한문에서 '故人'은 '예전부터 사귀어 온 사람, 옛 친구'를 뜻하는 경우가 많고, 현대어의 '고인'처럼 '돌아가신 분'으로만 읽으면 문맥이 어긋난다.
'天晴'은 하늘이 갠 상태를, '卜居深'은 거처를 정한 곳이 깊숙함을, '柳色新'은 버드나무 빛이 새롭게 보임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天晴'은 '하늘이 개다'라는 뜻이므로 '날이 개다'는 적절한 풀이이다.

② O
'卜居'는 살 곳을 정하여 거처함이고, '深'은 그곳이 깊숙함을 나타내므로 '사는 곳이 깊다'는 문맥에 맞는 풀이이다.

③ O
'柳色新'은 비 갠 뒤 객사 주변 버드나무의 빛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뜻이므로 '버드나무 빛깔이 새롭다'는 적절하다.

④ X
'故人'은 이 시에서 이별하는 상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옛 친구' 또는 '벗'이라는 뜻이다.
틀린 부분은 '돌아가신 분'이라는 풀이이다.
올바르게는 '예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 옛 벗'으로 풀이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현대 국어의 '고인' 의미를 그대로 대입하면 틀리기 쉽다. 이 시는 벗을 서쪽 변방으로 떠나보내며 술잔을 권하는 송별시이므로, 문맥상 '故人'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떠나는 친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의 한자어 풀이는 단어만 떼어 보지 않고 시의 상황과 정서를 함께 확인한다. 송별, 은거, 자연 묘사처럼 장면이 분명하면 그 장면에 맞지 않는 현대어 뜻은 먼저 의심하게 된다.

암기 포인트

'故人'은 송별시에서 대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옛 친구'이다.

NoteBase

문 7. ㉠ ~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그는 고집이 어찌나 센지 한번 결심하면 (㉠)이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 아무리 (㉢)한 인물이라도 좋은 동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① ㉠: 搖之不動, ㉡: 間於齊楚, ㉢: 蓋世之才
② ㉠: 搖之不動, ㉡: 看於齊楚, ㉢: 改世之才
③ ㉠: 擾之不動, ㉡: 間於齊楚, ㉢: 改世之才
④ ㉠: 擾之不動, ㉡: 看於齊楚, ㉢: 蓋世之才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 성어의 뜻과 정확한 한자 표기를 함께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요지부동(搖之不動)은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각이나 태도가 매우 굳센 상태를 이른다.
간어제초(間於齊楚)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였다는 뜻으로, 강한 두 세력 사이에서 약한 쪽이 화를 입는 경우를 이른다.
개세지재(蓋世之才)는 세상을 덮을 만큼 뛰어난 재주라는 뜻으로, 매우 출중한 인물을 이른다.

선지별 해설

① O: ㄱ의 搖之不動은 한번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문맥에 맞고, ㄴ의 間於齊楚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와 통하며, ㄷ의 蓋世之才는 매우 뛰어난 인물을 뜻하므로 세 연결이 모두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ㄴ의 看於齊楚와 ㄷ의 改世之才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에 맞는 성어는 볼 간이 아니라 사이 간을 쓰는 間於齊楚이며, 출중한 인물을 뜻하는 말은 改世之才가 아니라 蓋世之才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ㄱ의 擾之不動과 ㄷ의 改世之才이다.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擾가 아니라 搖를 쓰는 搖之不動이며, 매우 뛰어난 재주를 뜻하는 말은 改世之才가 아니라 蓋世之才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ㄱ의 擾之不動과 ㄴ의 看於齊楚이다. ㄱ은 搖之不動이어야 하고, ㄴ은 間於齊楚이어야 한다. ㄷ의 蓋世之才는 맞다.

오답 포인트

뜻만 대강 알고 있으면 비슷한 음이나 모양의 한자를 끼워 넣은 함정에 걸리기 쉽다. 특히 搖之不動의 搖, 間於齊楚의 間, 蓋世之才의 蓋처럼 관용적으로 굳어진 글자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문맥으로 먼저 뜻을 확정한 뒤, 그 뜻에 맞는 관용 성어를 떠올리고 마지막에 한자 글자까지 대조하면 된다.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인지, 강자 사이에 낀 상황인지, 뛰어난 인물을 말하는 상황인지로 갈라 보면 빠르게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요지부동은 흔들어도 안 움직임, 간어제초는 강자 사이에 낌, 개세지재는 세상을 덮을 재주이다.

NoteBase

문 8. ㉠~㉢의 표제어에 적합한 한자 표기는?

㉠ 유세 :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
㉢ 탑본 :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냄.

① ㉠: 遊說, ㉡: 俎歲, ㉢: 拓本
② ㉠: 遊說, ㉡: 租稅, ㉢: 搨本
③ ㉠: 誘說, ㉡: 俎歲, ㉢: 搨本
④ ㉠: 誘說, ㉡: 租稅, ㉢: 拓本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뜻풀이에 맞는 표제어의 정확한 한자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세(遊說)는 자기 의견이나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일이다.
조세(租稅)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해 국민에게 강제로 거두는 돈이다.
탑본(搨本)은 비석이나 기물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내는 일 또는 그렇게 떠낸 종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遊說은 맞다. 다만 ㄴ의 但歲가 틀렸고, 조세의 올바른 한자는 租稅이다. ㄷ의 拓本도 틀렸고,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는 탑본(搨本)이다.

② O
ㄱ 遊說, ㄴ 租稅, ㄷ 搨本이 모두 뜻풀이와 정확히 대응한다. 유세는 '돌아다니며 선전함', 조세는 '세금', 탑본은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떠냄'이라는 뜻을 가진다.

③ X
ㄱ의 誘說이 틀렸다. 문제의 뜻풀이는 남을 꾀어 말하는 뜻이 아니라 돌아다니며 선전하는 뜻이므로 遊說이어야 한다. ㄴ의 但歲도 틀렸고, 조세는 租稅로 써야 한다. ㄷ의 搨本은 맞다.

④ X
ㄱ의 誘說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遊說이다. ㄷ의 拓本도 틀렸고 표제어는 搨本이다. ㄴ의 租稅만 맞으므로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유세를 소리가 비슷한 誘說로, 탑본을 익숙한 표기처럼 보이는 拓本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일상적 연상보다 사전 표제어의 정확한 한자 표기를 묻는 함정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뜻풀이의 핵심어를 잡으면 된다. '돌아다니며 선전함'이면 遊說, '세금'이면 租稅, '비석의 글씨를 떠냄'이면 탑본(搨本)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세는 돌아다니므로 遊說, 조세는 세금이므로 租稅, 탑본의 표제어 한자는 搨本이다.

NoteBase

문 9. 우리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라매’와 ‘수라’는 몽고어에서 유입된 말이다.

②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③ 15세기부터 주격 조사 형태 ‘가’가 나타나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④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나타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어사의 기본 사실인 몽골어 차용어, 중세 국어의 모음조화, 주격 조사 형태의 변화 시기, 『훈몽자회』의 의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몽골어 차용어는 고려 말~조선 초 대몽 접촉 과정에서 우리말에 들어온 어휘이다.
중세 국어의 모음조화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이 현대 국어보다 더 체계적으로 작동한 음운 현상이다.
주격 조사는 중세 국어에서 주로 '-이'가 쓰였고, '-가'는 15세기부터 활발히 쓰인 형태가 아니다.
『훈몽자회』는 최세진이 편찬한 책으로, 한글 자모의 이름과 배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라매'와 '수라'는 모두 몽골어 계통의 차용어로 보는 것이 맞다. '보라매'는 몽골어 'boro'와 관련되고, '수라'도 몽골어 계통 어휘에서 들어온 말로 설명된다.

② O
모음조화는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더 뚜렷했다. 현대 국어에는 잔재만 남은 경우가 많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응이 더 엄격하게 나타났다.

③ X
틀린 부분은 '15세기부터'와 '활발하게 사용되었다'이다. 15세기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주로 '-이'였고, '-가'는 16세기 후반 이후에 문헌상 나타나며 뒤 시기에 점차 사용이 확대되었다. 올바르게는 '주격 조사 형태 가는 15세기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16세기 후반 이후 나타나 점차 쓰임이 늘어났다.'이다.

④ O
『훈몽자회』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나타난다. 그래서 한글 자모 이름과 배열을 설명할 때 대표 자료로 활용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이/가' 체계를 중세 국어에 그대로 투영하면 쉽게 틀린다. 훈민정음 창제 시기와 '-가'의 일반적 사용 시기를 같은 시대로 묶어 기억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어사 선지는 '개념 자체'보다 '언제부터 어떻게 쓰였는가'를 함께 본다. 특히 조사, 표기, 음운 현상은 시기 정보를 먼저 대입한 뒤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중세 국어는 모음조화가 강하고 주격 조사는 '-이'가 중심이며, 『훈몽자회』는 자모 이름과 순서를 보여 주는 책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에서 '신(臣)'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臣)이 부영(傅榮)에게 말하였습니다.
"수차(水車)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수차를 보았습니까?"
"지난번 소흥부(紹興府)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이 호수 언덕에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적게 들이면서 물을 많이 퍼 올리더군요. 가뭄에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차는 물을 푸는 데만 사용될 뿐이니 배울 것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는 논이 많은데 자주 가뭄이 들지요. 만약 수차 만드는 법을 배워 우리 백성에게 가르쳐 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조금만 수고해 가르쳐 주면, 우리 백성 대대로 큰 이익이 생길 것이오. 그 제작법을 잘 알아보시되 모자란 점이 있으면 뱃사람들에게 물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최부, 「표해록」 -

① 공리공론(空理空論)
② 실사구시(實事求是)
③ 이용후생(利用厚生)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문 속 신의 태도를 실학의 핵심 개념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공리공론은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빈말을 가리킨다.
실사구시는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용후생은 유용한 기술과 제도를 활용해 백성의 생활을 이롭게 하고 두텁게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주권재민은 국가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근대 민주 정치의 원리를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공리공론'으로 본 점이다. 공리공론은 현실 효용이 없는 빈 이론인데, 신은 수차를 배워 가뭄 때 농사에 도움을 주려 한다. 올바르게는 백성 생활에 실제 이익을 주는 실용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실사구시'를 가장 적절한 태도로 본 점이다. 신이 수차의 효용을 실제로 보고 판단한 면은 있으나, 지문의 중심은 사실 탐구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들여와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려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이용후생'이 핵심이다.
③ O: 신은 수차 제작법을 배워 백성에게 가르치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본다. 유용한 기술을 활용해 민생을 개선하려는 태도이므로 이용후생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주권재민'으로 본 점이다. 주권재민은 정치 권력의 근원이 백성에게 있다는 정치 원리인데, 이 글은 정치 주체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기술의 도입과 민생 개선을 말한다. 올바르게는 실용 기술을 통한 후생 증진의 태도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실사구시는 실제 장면을 보고 판단했다는 점 때문에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글의 무게중심은 '사실을 확인했다'에 있지 않고 '그 기술을 배워 백성에게 이롭게 쓰자'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학 관련 개념은 지문이 무엇을 최종 목표로 삼는지를 보면 구별된다. 사실 탐구가 중심이면 실사구시이고, 유용한 기술·제도를 써서 백성 생활을 좋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으면 이용후생이다.

암기 포인트

이용후생은 유용한 것을 써서 백성 생활을 두텁게 하는 실학 정신이다.

NoteBase

문 11. 전화를 사용할 때, 표준 언어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②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③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④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화를 받을 때 상대를 배려하는 표준 언어 예절과 무뚝뚝하거나 단정적인 응대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화 언어 예절은 상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중하고 부드럽게 응대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핵심 키워드는 정중성, 배려, 완곡성이다.
무례한 전화 응대는 상대의 실수나 요구를 바로 잘라 말하여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다. 핵심 키워드는 단정, 직설, 무뚝뚝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아닌데요'는 상대의 말을 바로 부정하는 느낌이 강하고, 뒤의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들린다. 틀린 부분은 '아닌데요'처럼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 수 있는 직설적 응대이다. 올바르게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또는 '여기는 해당 번호가 아닙니다.'처럼 부드럽고 정중하게 말하는 편이 적절하다.
② O: 상대를 기다리게 할 때 양해를 구하고, 이어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처리 방향을 밝혀 정중한 전화 응대가 된다.
③ O: 찾는 사람이 부재중임을 알리고, 전할 내용을 물어보는 표현이므로 상대의 용건을 끝까지 받아 전달하려는 예절 바른 응대이다.
④ O: 통화 내용을 마무리한 뒤 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인사까지 덧붙였으므로 통화 종료 예절에 맞는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내용만 보면 사실 전달은 되지만, '아닌데요'처럼 상대를 바로 끊어 세우는 표현 때문에 예절상 부적절하다. 이 문제는 정보의 맞고 틀림이 아니라 말하는 태도의 정중성을 묻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화 예절 문제에서는 먼저 사실 전달 자체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어조인지 확인한다. 부정, 거절, 정정 상황일수록 단정적 표현보다 완곡하고 정중한 표현이면 적절한 선지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전화 응대는 맞는 말보다 부드러운 말이 기준이 된다.

NoteBase

문 12. 다음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 선풍기는 바람을 차게 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방 안에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물건이 와 닿으면 소리가 나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일 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즉시 새 물건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① 호소 기능
② 정보 제공 기능
③ 약속 기능
④ 오락 기능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광고 문안에 드러난 담화의 기능을 정보 제공, 호소, 약속, 오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보 제공 기능은 상품의 성능과 특징을 사실처럼 알려 주는 기능이다.
호소 기능은 소비자의 욕구나 감정을 자극하여 구매 의사를 끌어내는 기능이다.
약속 기능은 교환, 보상, 책임 같은 판매자의 보장 내용을 내세우는 기능이다.
오락 기능은 유머나 재미로 흥미를 끄는 기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①을 '광고 문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으로 보는 판단이다.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여 구매 욕구를 끌어내므로 호소 기능이 포함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②를 '광고 문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으로 보는 판단이다.
'바람을 차게 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방 안에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멈춥니다'는 제품의 성능과 작동 방식을 알려 주므로 정보 제공 기능이 포함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③을 '광고 문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으로 보는 판단이다.
'일 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즉시 새 물건으로 교환해 드립니다'는 교환 보장을 제시하므로 약속 기능이 포함된다.

④ O
이 문안에는 유머나 재미를 주기 위한 표현이 없고 제품의 성능, 안전성, 교환 보장만 제시된다.
따라서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은 오락 기능이다.

오답 포인트

호소 기능을 단순한 구매 권유 문장으로만 좁게 보면 ①을 놓치기 쉽다. 안전, 편리, 보호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도 호소 기능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광고 문장을 기능 단위로 나누어 본다. 성능 설명은 정보 제공, 보장 문구는 약속, 감정 자극은 호소, 웃음과 재미는 오락으로 대응시키면 답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성능은 정보 제공, 보장은 약속, 감정 자극은 호소, 재미는 오락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욕은 공격성의 표현이자, 말로 하는 폭력이다. 아이가 욕을 배워 친구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은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다.
(가) 그들이 집회에서 내뱉는 폭언은 자신들과 기성세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행동 양식이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자성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나) 그러나 욕은 특수 용어가 아니다. 특수 용어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분명하게 한다. 언어 그 자체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욕과 같은 추한 말은 언어를 저하시키고 못쓰게 만든다.
(다) 1968년 이탈리아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학생들이 귀에 담기에 힘든 폭언을 내뱉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자신들은 규범을 깨뜨릴 것이며 이제 기성세대에, 국가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는 성명이었다. 학생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놀라서 그 자리에 못이 박히고 말았다. 입만 열면 욕설이 난무하는 집단 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바보나 멍청이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흉내를 내며 학생들 편에 설 수도 없었다.
(라)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도 특수한 말이 있다. 의사, 변호사, 공증인 등 이들이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은 동료 간의 의사소통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 확실히 구별을 짓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가 특수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말을 쓰면 그 분야 사람들은 화를 낸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① (다) - (가) - (나) - (라)
② (다) - (가) - (라) - (나)
③ (라) - (나) - (가) - (다)
④ (라) - (나) - (다) - (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지시어와 접속어가 받는 앞문장을 확인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화로 나아간 뒤 예외를 대조하는 문단 배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서두에서 아이가 욕을 하는 이유를 말한 뒤, (다)의 "같은 이유"가 그 내용을 받아 학생운동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어 (가)의 "그들"이 (다)의 학생들을 가리키며 그 욕설의 집단적 기능을 풀이한다. 다음으로 (라)에서 학생 집단을 넘어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도 특수한 말이 있다는 일반화로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그러나"가 바로 앞의 특수 용어 설명을 뒤집으면서 욕은 그런 특수 용어와 다르다고 정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다) 다음에 (가)가 오는 점은 맞지만, (나)를 (라)보다 앞에 두면 "그러나 욕은 특수 용어가 아니다"의 대조 대상이 사라진다. 틀린 표현은 (가) 뒤에 (나)를 둔 배열이다. 올바르게는 특수 용어의 성격을 설명하는 (라)가 먼저 오고, 그 뒤에 (나)가 와서 욕은 특수 용어가 아니라고 대조해야 한다.
② O: (다)는 서두의 "아이가 욕을 배워... 반항"과 연결되는 "같은 이유"로 시작하므로 첫머리에 온다. (가)는 (다)의 학생들을 "그들"이라고 받아 욕설이 기성세대와 자신들을 구분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한다. (라)는 이를 더 일반화하여 집단의 특수어를 말하고, (나)는 "그러나"로 받아 욕은 그런 특수 용어와 다르다고 마무리하므로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다.
③ X: (라)를 맨 앞에 두면 서두의 욕 이야기에서 곧바로 특수 용어 일반론으로 건너뛰어 (다)의 사례 제시와 연결이 약해진다. 또 (나) 다음에 (가)(다)를 두면 대조로 한 차례 결론을 낸 뒤 다시 학생운동 사례로 되돌아가 흐름이 끊긴다. 올바르게는 사례 제시인 (다)와 그 해설인 (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일반화인 (라), 마지막 대조인 (나)가 와야 한다.
④ X: (라) 다음 (나)는 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배열은 (다)의 "같은 이유"가 받아야 할 앞내용을 멀리 떼어 놓아 첫 연결이 가장 부자연스럽다. 또한 학생운동 사례와 그 해설인 (다)(가)는 서두 직후에 붙어 있어야 한다. 틀린 표현은 특수 용어 일반론을 사례보다 앞세운 배열이다. 올바르게는 (다)-(가)를 먼저 두고 뒤에 (라)-(나)를 둔다.

오답 포인트

(나)의 "그러나"만 보고 (라)-(나)를 먼저 묶으면 쉽게 흔들린다. 이 문제는 그 연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의 "같은 이유", (가)의 "그들"처럼 더 강한 지시 관계를 먼저 잡아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배열 문제는 먼저 지시어와 접속어의 직접 연결을 찾고, 그다음 구체적 사례인지 일반화인지, 마지막으로 대조나 결론인지의 전개 방향을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같은 이유"는 앞문장, "그들"은 앞 대상, "그러나"는 바로 앞 내용의 반전이라는 순서 단서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4. '고공'이 조정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의 옷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 처음의 한어버이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畓)을 기경(起耕)하니
올벼논 텃밭이 ㉡ 여드레 갈이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여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밥 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궂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 호수(戶首)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세간이 줄어지게 되었는데
엊그제 ㉣ 화강도(火强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느냐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 허전, 「고공가(雇工歌)」 —

① ㉠ : 태조 이성계

② ㉡ : 조선 팔도

③ ㉢ : 임금

④ ㉣ : 왜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의적 표현으로 제시된 시어를 조선의 건국, 영토, 관료 집단, 외적 침입 같은 실제 역사적 대상에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정리

㉠ '처음의 한어버이'는 큰 집의 살림을 처음 일으킨 존재이므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를 가리킨다.
㉡ '여드레 갈이'는 넓게 일군 전답을 뜻하며 우의적으로는 조선의 팔도에 대응한다.
㉢ '호수'는 고공들이 시기하는 대상으로 제시되므로 고공들보다 높은 우두머리나 상층 벼슬아치에 가깝다.
㉣ '화강도'는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 외적 침입을 뜻하므로 임진왜란의 왜적에 대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은 '처음의 한어버이'이므로 조선 왕조를 처음 세운 존재를 가리킨다. 태조 이성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O
㉡은 '여드레 갈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덟으로 확장된 터전, 곧 조선의 팔도를 비유한 것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 임금'이다. 시에서는 고공들이 '호수'를 시기한다고 하였으므로 ㉢은 고공과 구별되는 상위 존재이지만, 집 전체의 주인과 바로 같은 층위로 놓이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고공들의 우두머리 또는 고공보다 높은 벼슬아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O
㉣은 집안 살림을 무너뜨린 '화강도'이므로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한 외적을 뜻한다. 작품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왜적을 가리킨다.

오답 포인트

주인과 고공만 단순 대응시키면 ㉢도 곧바로 임금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작품 안에서는 이미 '고공'과 '호수'가 따로 제시되어 고공들 내부의 위계와 질시가 드러나므로, ㉢을 최고 통치자인 임금으로 단정하면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의 작품은 표지어 하나만 따로 외우기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누가 집을 세웠는지, 누가 고공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는지, 누가 집안을 망쳤는지를 따지면 대응 대상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한어버이=태조 이성계, 여드레 갈이=조선 팔도, 화강도=왜적, 호수=임금이 아닌 상층 우두머리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 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켕기었다. —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르렁거르렁하였다.

… (중략) …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인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부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①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나 있다.
②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③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
④ 행운과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설의 서술 방식과 표현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객관적 서술은 인물의 외적 행동과 말만을 드러내고 내면 판단을 직접 개입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글은 "조금 겁이 났음이다", "마음에 켕기었다"처럼 김 첨지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므로 행동만을 객관적으로 그린 서술이 아니다.
복선은 뒤의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장치이며, 비극을 심화하는 소재는 후반의 비극적 정서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사물이나 상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난다. 김 첨지가 뜻밖의 행운을 얻으면서도 불길함을 느끼고, 아내가 나가지 말라고 붙드는 대목은 뒤의 비극을 예고한다.

② O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사용된다. 죽은 아내 앞에서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라고 하는 대목의 설렁탕은 늦어 버린 정성과 상실감을 더 선명하게 하여 비극성을 깊게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이다. 이 글은 김 첨지의 행동만이 아니라 "조금 겁이 났음이다", "마음에 켕기었다"와 같은 서술로 내면 심리까지 직접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비극적 긴장감을 높인다고 보아야 한다.

④ O
행운과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된다. 돈을 벌게 되는 행운과 병든 아내에 대한 꺼림칙한 예감이 함께 제시되어 이후 전개를 불안하게 만든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객관적"과 "행동만"이라는 표현을 함께 묶어 서술 태도를 단순화한 선지이다. 지문에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는 문장이 보이면 객관적 행동 묘사만으로 한정하는 선지는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서술자가 인물의 마음을 직접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심리 서술이 있으면 행동만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 선지는 바로 의심할 수 있다. 이어서 복선, 대비, 반어처럼 결말과 정서 형성에 기여하는 표현을 함께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인물의 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말하면 객관적 행동 묘사만의 글이 아니다. 행운과 불길함의 교차는 복선과 긴장감의 신호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

① 죽음에 대해 달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② 4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④ 독백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주제 의식과 정서, 운율 형성 방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달관은 삶과 죽음을 초월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4음보는 네 개의 리듬 단위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율격이다.
무욕은 미련과 집착을 비우고 담담하게 세계를 받아들이는 상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화자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며 죽음을 두려움보다 귀의와 회귀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죽음을 관조적으로 수용하는 달관의 태도가 드러난다.

② X
틀린 부분은 "4음보의 반복"이다.
이 작품은 정형적인 4음보 율격을 반복해 리듬을 만드는 시가 아니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와 같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과 정서의 울림을 형성한다.

③ O
"새벽빛", "노을빛",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등의 표현에는 삶에 대한 집착보다 순응과 초월의 인식이 담겨 있다.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보여 준다.

④ O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말하는 독백적 진술로 전개된다. 어조도 격정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다.

오답 포인트

운율이 느껴진다고 해서 곧바로 4음보로 단정하면 오답이 된다. 이 작품의 핵심은 정형률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구가 만드는 의미와 정서의 리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의 운율을 묻는 선지가 나오면 먼저 정형적인 음보 반복인지, 아니면 시어·시구의 반복에 따른 자유시의 운율인지를 구분한다. 주제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정서를 함께 묶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귀천은 죽음을 하늘로의 귀환으로 받아들이는 달관의 시이며, 운율은 4음보가 아니라 반복 시구에서 살아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文學敎育論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이를 저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 같은 움직임은 주로 文學敎育이 강화되면 國語科敎育이 陳腐한 敎訓을 앞세운 道德主義 修身敎科로 轉落될지 모른다거나 혹은 文學 少年少女의 感傷癖을 만연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國語科를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 이들의 주장인즉, "文學活動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言語活動 중의 한 類型에 불과하며, 文學作品이 國語科의 敎材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휘량이 많고 문장 표현의 양상이 다채롭다는 조건뿐이다. 文學이 國語敎育의 核心은 될 수 없다. 國語敎育은 어디까지나 言語敎育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왜 言語技能의 形式陶冶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언어의 본질을 用具的, 提報的인 것으로만 보고 感化的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① 문학을 언어활동의 도구로만 보려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② 도덕주의를 중시하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③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④ 국어교육은 언어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학을 언어 기능의 보조 수단으로만 보는 관점과 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문은 문학을 어휘와 표현 학습을 위한 언어 자료 정도로만 보는 견해를 비판한다.
필자는 언어를 도구적·전달적 기능만으로 볼 수 없으며, 문학의 감화적 가치도 국어교육에서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문학을 여러 언어활동 중 한 유형으로만 보고, 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을 다루는 이유도 어휘와 표현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한정하는 견해를 지문이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도덕주의를 중시하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표현이다.
지문은 오히려 문학교육 강화에 반대하는 쪽이 국어교육이 도덕주의 교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고 소개할 뿐이며, 필자가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틀린 부분은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한다는 표현이다.
이 말은 지문 속 반대 견해의 주장일 뿐이며, 필자는 그 관점이 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국어교육은 언어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적극 옹호'한다는 표현이다.
필자는 국어교육을 언어생활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는 견해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언어 기능 중심으로만 환원하는 태도를 비판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필자의 견해와 필자가 소개한 반대 견해를 섞어 읽게 만드는 데 있다. 따옴표 안의 주장과 그 뒤의 반박을 구분하지 않으면 ③이나 ④처럼 반대 견해를 필자의 입장으로 오해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형 지문에서는 필자가 직접 긍정하는 내용과 소개만 하는 반대 주장을 먼저 분리하면 된다. 특히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전환 표현 뒤에 필자의 핵심 입장이 놓이는 경우가 많다.

암기 포인트

이 글은 문학을 언어 기능의 도구로만 축소하는 관점을 비판하고, 문학의 본질적 가치와 감화적 기능을 옹호하는 글이다.

NoteBase

문 18. ㉠~㉣의 문장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아이의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 아침부터 흐린 게 비가 올런지 몰라 우산을 미리 챙겨 나갔다. ㉡ 길을 나서자 갑자기 곧 해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 시장 입구에는 앳된 소녀들이 우산을 들고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 소녀들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던 기억이 두루뭉술하게 떠올랐다.

① ㉠의 '올런지'는 표기법에 맞게 '올른지'로 고친다.

② ㉡의 '해님'은 표기법에 맞게 '햇님'으로 고친다.

③ ㉢의 '앳된'은 표준어에 맞게 '앳띤'으로 고친다.

④ ㉣의 '두루뭉술하게'는 의미상 자연스럽게 '어렴풋이'로 고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어미 표기, 사이시옷, 표준어,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ㄹ는지'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해님'은 '해'에 접미사 '-님'이 붙은 말이어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앳되다'는 어려 보이는 모양을 뜻하는 표준어이며 관형형은 '앳된'이다.
'어렴풋이'는 기억이나 대상이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게 떠오르는 상태를 나타내어 '기억이 떠오르다'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올런지'는 잘못된 표기이지만, 고쳐야 할 말은 '올른지'가 아니라 '올는지'이다.
불확실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ㄹ는지'가 붙으므로 '비가 올는지 몰라'로 고친다.

2번 X
틀린 부분은 '햇님'으로 고친다는 판단이다.
'해님'은 표준 표기이고, '해'에 접미사 '-님'이 붙은 말이므로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따라서 '해님'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앳띤'으로 고친다는 판단이다.
표준어는 '앳되다'이고 그 활용형이 '앳된'이므로 원래 표현이 맞다.
따라서 '앳띤'이 아니라 '앳된'으로 두어야 한다.

4번 O
'두루뭉술하게'는 뭉뚱그려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라 말이나 태도를 가리킬 때 더 자연스럽다.
기억이 떠오르는 양상은 희미함을 나타내는 '어렴풋이'가 더 잘 맞으므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로 고치는 방안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올런지'는 소리 나는 대로 '올른지'로 떠올리기 쉽고, '해님'은 발음 때문에 '햇님'으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앳된'과 '앳띤'은 형태가 비슷해 보여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발음에 끌려 표기를 바꾸는 것과, 뜻이 대강 비슷하다고 해서 문맥에 맞지 않는 부사를 고르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제가 맞춤법인지 표준어인지 의미 적절성인지부터 가른다. 어미는 형태소 단위로 확인하고, 사이시옷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따져 본다. 어휘의 자연스러움은 앞뒤 말과의 결합을 보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올는지'가 맞고, '해님'은 사이시옷이 없으며, 표준어는 '앳된'이다. 기억은 '두루뭉술하게'보다 '어렴풋이' 떠오른다.

NoteBase

문 19.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냐 혹은 이타적이냐 하는 이분법적 질문은 흑백 논리를 지양하고 (㉠)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그저 지적 호사가들의 관심이나 끌 법한 낡은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같은 게 실제로 있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을/를 품어볼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생각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한 답변도 대체로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 맡아 왔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의 원천으로서 인류의 삶에 훌륭한 (㉢)이/가 되어온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되었다는 근원적 한계를 갖는다.

① ㉠: 다원성, ㉡: 의문, ㉢: 전범, ㉣: 착종

② ㉠: 다양성, ㉡: 회의, ㉢: 지침, ㉣: 고착

③ ㉠: 중층성, ㉡: 질문, ㉢: 모범, ㉣: 연루

④ ㉠: 융합성, ㉡: 반문, ㉢: 통찰, ㉣: 편향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맞는 어휘의 의미와 결합 관계를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ㄱ은 흑백 논리와 대비되는 열린 가치가 들어가야 하므로 '다양성'이 가장 자연스럽다.
ㄴ은 '품다'와 결합해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회의'가 적절하다.
ㄷ은 철학이나 종교가 삶의 길잡이 구실을 했다는 문맥이므로 '지침'이 맞다.
ㄹ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하므로 '고착'이 가장 정확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ㄷ의 '전범'과 ㄹ의 '착종'이다.
- '전범'은 본보기라는 뜻이라 철학이나 종교가 삶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문맥과는 거리가 있고, 여기서는 '지침'이 자연스럽다.
- '착종'은 뒤섞이거나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에 가깝다. 이 문장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굳어 있다는 뜻이므로 '고착'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다양성'은 흑백 논리를 지양하는 태도와 잘 호응한다.
- '근본적인 회의'는 인간 본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자체를 의심하는 표현으로 문맥에 맞는다.
- 철학이나 종교가 삶의 '지침'이 되어 왔다는 연결도 자연스럽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 '고착'되었다는 비판도 정확하다.

③ X
- 틀린 부분은 ㄱ의 '중층성', ㄷ의 '모범', ㄹ의 '연루'이다.
- '중층성'은 여러 층위가 겹친 구조를 말해 흑백 논리의 반대 가치로는 적절하지 않고, 여기서는 '다양성'이 맞다.
- '모범'은 본받을 대상이라는 뜻이라 지혜의 원천이 삶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문맥보다 약하다. '지침'으로 고쳐야 한다.
- '연루'는 어떤 일에 관계되어 얽힌다는 뜻이므로 사고방식이 굳어 있다는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고착'이 맞다.

④ X
- 틀린 부분은 ㄱ의 '융합성', ㄴ의 '반문', ㄷ의 '통찰'이다.
- '융합성'은 서로 다른 것을 섞어 하나로 만드는 성격이라 흑백 논리의 대립항으로 쓰기 어렵다. '다양성'으로 고쳐야 한다.
- '근본적인 반문'은 앞말을 되받아 묻는 느낌이어서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회의'가 적절하다.
- '통찰이 되어오다'는 결합이 어색하다.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뜻이므로 '지침'이 자연스럽다.

오답 포인트

비슷하게 그럴듯한 한자어에 끌리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①의 '의문', ③의 '질문'처럼 일부 낱말만 자연스러워 보여도, 네 칸이 모두 문맥에 맞아야 정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문제는 각 낱말의 사전적 의미만 보지 않고 앞뒤 문장과의 결합까지 확인해야 한다. 흑백 논리와의 대비, 삶의 길잡이, 사고의 굳어짐처럼 문맥의 핵심 의미를 먼저 잡으면 정답 조합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흑백 논리의 반대는 다양성,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 회의, 삶의 길잡이는 지침, 사고가 굳으면 고착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페니실린은 약품으로 정제된 이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세균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 사용이 잦아지자 세균들이 내성을 갖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항생제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않으면서 세균만 골라 죽이는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이겨내는 세균들이 계속 등장했다. 플레밍 또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니실린에 내성인 세균이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었다.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이 곧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려는 인류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려는 세균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균은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추어 맞서고, 인류는 내성을 가진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을 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은 메티실린 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의 길이 열렸다. 메티실린은 포도상 구균을 물리치며 맹활약했지만 세균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메티실린의 효과가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들이 등장했고, 이에 인류는 반코마이신을 개발해 탈출구를 열었다. 이를 치료제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그람 음성 세균은 카바페넴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최강의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슈퍼 박테리아)도 등장했다.

① 인류는 더 강력한 세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② 항생제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③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④ 앞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날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항생제 개발과 세균의 내성 획득이 반복되는 지문의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항생제 개발은 인류가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약을 만들어 내는 대응이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기존 항생제에 버티는 성질을 갖추어 살아남는 현상이다.
지문의 핵심은 인류의 항생제 개발과 세균의 내성 획득이 끝없이 반복되는 대립 구조라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은 세균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만, 그 결과를 곧바로 인류의 멸망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멸망이 아니라 인류와 세균의 계속되는 대립이다. 틀린 표현은 '멸망할 것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인류는 더 강한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항생제를 계속 개발할 것이다'이다.
② X: 지문은 항생제 남용이 내성을 키운다고 말할 뿐, 항생제 사용 자체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항생제는 여전히 유용한 치료제라고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항생제는 신중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이다.
③ O: 지문은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면 세균이 내성을 갖추고, 이에 다시 인류가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에 다제 내성균까지 등장했으므로, 이어질 내용은 인류가 이를 치료할 새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라는 진술이 가장 자연스럽다.
④ X: 지문은 페니실린, 메티실린, 반코마이신, 카바페넴에 차례로 대응하는 내성균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난다는 내용은 지문의 흐름과 정반대이다. 틀린 표현은 '내성이 없는 세균'이다. 올바르게는 '새 항생제에도 내성을 갖는 세균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세균의 위협을 과장해 파국으로 몰아가는 선택지이고, ②는 항생제 남용 문제를 전면 금지 주장으로 비약시킨 선택지이다. ④는 지문의 반복 구조를 거꾸로 뒤집은 선택지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어질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는 지문의 마지막 문장과 반복된 인과관계를 먼저 잡는다. 이 글은 '새 항생제 개발 → 세균의 내성 획득 → 다시 새 항생제 개발'의 구조가 반복되므로, 다음 내용도 이 연장선에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항생제 문제의 핵심은 개발과 내성의 반복이다.

NoteBase